

영화 <메멘토(Memento)>(200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서 주인공은 사고의 충격으로 10분 이상 기억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자,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며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김으로써 잃어버린 이전 기억을 더듬어나가고자 애쓴다. 기억의 지속 시간이 그보다 훨씬 더 긴 보통의 사람들 역시 특정한 순간이나 장소를 기억하기 위한 어떠한 대상, 즉 '메멘토'를 필요로 한다. 사진은 가장 대표적인 메멘토 중 하나다. 그러나 사진이 기록한 순간의 그 생생한 현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과거가 되고, 남은 사진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일종의 지표(index)로 남을지언정 당시의 감각과 정서는 휘발되며 기억은 퇴색되고 변조된다.

백승우의 <메멘토>는 사진에 의지하는 기억이 얼마나 한정적이며 왜곡되기 쉬운지에 대해 말한다. 사실상 사진이 찍힌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기억의 변조와 왜곡은 시작되지만, 그 사진을 찍었거나 찍힌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 깊이 연루된 사람의 손을 떠나고 나면 그 사진은 이제 기억과는 무관하고 모든 주관적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성적(neutral)'인 시각 이미지가 된다. 작가는 이 작업에서 그렇게 메멘토의 기능을 상실한 수많은 개인의 사진들을 채집해 전혀 다른 의미로 새로운 맥락을 부여했다. 그는 우선 미국 여러 도시의 베흐시장에서 마운트된 5만 장의 슬라이드 사진을 구하여 그 중 2,700여 점을 선별해 인화한 뒤, 작가 자신을 포함하여 여덟 명의 사람에게 그 중 여덟 장씩을 다시 선택해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하였다. 여덟 명이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는 막연한 정서적 끌림이든 일정한 내러티브의 재구성이든 각자의 이유와 기준이 존재하고, 이제 수천 장의 사진 중 단 여덟 장을 선택하고 거기에 나름의 의미와 해석을 부여한 그들이 바로 그 사진의 '행위자(agent)'가 된다. 작가는 여덟 명의 행위자에게 그들이 선택한 여덟 장의 사진을 순서대로 상자에 담아 전달하고 각각의 사진들에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임의의 날짜를 기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다시 취합해 전시장 안 여덟 개의 테이블 위에 각각 배치하였다. 따라서 전시장에서 최종 결과물을 맞닥뜨리는 관객은 그 사진의 존재론적 근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맥락의 사진들을 감상하게 된다. 사진에 기입된 날짜들은 새로운 맥락의 단서인 동시에 그러한 근원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한다.

<메멘토>는 사실상 백승우의 작품 중 작가의 개입이 가장 '사진적'이지 않은 작업이다. 다시 말해 관객이 바라보는 결과물은 사진이지만 작가가 직접 찍은 것도 사후 작업을 통해 물리적인 변형을 가한 것도 아니다. 작가는 다만 이미지의 채집과 일차 선택의 과정을 통해 거대한 저장소를 만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아카이브에서 각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뿐이다(자신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그는 관객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의 작가는 누구인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진실인가? 따라서 '사진다운' 사진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메멘토>는 예술적 매체로서 사진의 속성은 무엇인가 혹은 사진을 통해 할 수 있는 창작 행위는 어디까지인가를 탐구하는 '사진에 대한' 사진이 된 셈이다.